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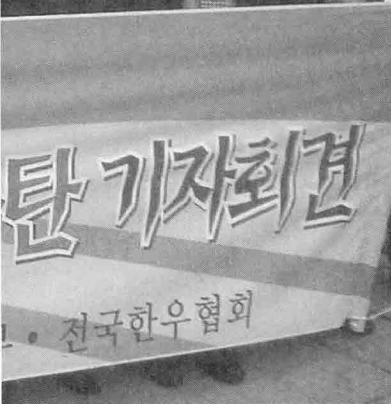
4.9 총선이 끝나면 차기 등원하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고위급 쇠고기협상을 한다니... 이거야 원 버스타고 왔다갔다하는 거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루전날 요구하면 다음날 협상을 한다??? 웃기는 노릇이다.
4월 11일 협상이 시작되는 첫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



쇠고기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4월 18일 다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면개방 수준의 협상결과에 이명박대통령이 부시와 만나기 위해 선물이 필요했던 모양이다.는 좋은 시사점이 되었다는 평가다.



파격적인 협상결과에 농민단체,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많이 모였고 또한 많은 기자들과 역시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몇 배가 넘는 우리 경찰들의 모습도 보인다.

회견이 끝날 무렵 우리 실무자들... 연기실력 뽐내며 퍼포먼스에 몰두하고 있다.



퍼포먼스에 열중하고 있는 순간... 역시 우리 경찰들 등장하고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나 뭐라나 하지 말란다. 역시 퍼포먼스는 경찰이 나와주셔야 제대로 된 사진을 담을 수 있는지 카메라 소리 요란해진다.

이번에는 한농연이다.

4월 22일 쇠고기협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FTA에 대한 행보를 규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항의방문을 목적으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앙임원과 시도회장단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빈파 광우병쇠고기 서울감시단 이빈파 공동대표도 소비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중 조공협상인 쇠고기협상과 굴욕적인 한미FTA를 농민들의 힘으로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어.. 못 들어가네..
기자회견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항의방문을 예정했으나 장관의 일정으로 차관을 면담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몇 명만 들어보낸다고 청사 안으로 한농연 대표단의 진입을 경찰이 막고 있다. 결국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면담과 항의서한 전달은 무산되었다.